

번호 09-5

제 목	국문	관상동맥질환 위험요인 규명을 위한 코호트내 환자-대조군 연구				
	영문	A Nested Case Control Study on Risk Factors of Coronary Heart Disease in Korea				
저 자 및 소 속	국문	김기순 ¹ , 류소연 ¹ , 박 종 ¹ , 박종구 ² , 김춘배 ² , 천병렬 ³ , 이대용 ⁴ , 이강숙 ⁵ , 이덕희 ⁶ , 지신하 ⁷ , 서일 ⁸ 및 심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 연구회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¹ ,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² ,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³ ,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⁴ ,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⁵ , 고신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⁶ ,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⁷ ,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⁸				
	영문	Ki Soon Kim ¹ , So Yeon Ryu ¹ , Jong Park ¹ , Jong Ku Park ² , Byung Yeol Chun ³ , Tae-Yong Lee ⁴ , Kang-Sook Lee ⁵ , Duk Hee Lee ⁶ , Sun Ha Jee ⁷ , Il Suh ⁸ for Korean Research Group for Cardiovascular Disease Prevention and Control. Dept. of Preventive Medicine, College of Medicine, Chosun University ¹ , Dept. of Preventive Medicine, Yonsei University Wonju College of Medicine ² , Dept.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, School of Medicine,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³ , Dept. of Preventive Medicine, College of Medicine,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⁴ , Dept. of Preventive Medicine, Catholic University Medical College ⁵ , Dept. of Preventive Medicine, College of Medicine, Kosin University ⁶ , Graduate School of Health Science and Management, Yonsei University ⁷ , Dept.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,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⁸ .				
분 야	보건관리 () 역 학 (○) 환 경 ()	발 표 자	일반회원 (○) 전 공 의 ()	발표 형식	구 연 (○) 포스터 ()	
진행 상황	연구완료(○), 연구중() → 완료 예정 시기 : 년 월					
<p>1. 연구 목적</p> <p>한국인에 있어서 관상동맥성 심질환의 위험 요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코호트내 환자-대조군 연구를 시행하였다.</p> <p>2. 연구 방법</p> <p>환자군 246명은 KMIC 코호트의 남성 피보험자 115,600명중에서 1993년부터 1997년 사이에 관상동맥성 심질환(I20-25)으로 의료기관에 입원, 치료후 의료보험급여가 청구된 환자들 중 표본을 추출하여 진단명을 확인한 자이고, 대조군은 동일 코호트에서 관상동맥성 심질환과 관련이 없는 질환으로 입원 치료후 의료보험급여 청구된 자로 환자군과 연령과 지역을 1 : 2로 짝짓기하여 뽑은 483명이었다. 자료는 1990년 KMIC 코호트가 받은 건강진단결과와 1992년의 건강진단 문진 자료를 의료보험공단으로부터 확보하였고, 대상자들에게 전화설문을 시행하여 추가자료를 수집하였다.</p>						

3. 연구 결과

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관상동맥성 심질환에 걸릴 위험이 과거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1.81배(95% 신뢰구간 : 1.08-3.04), 현재 흡연자는 1.96배(95% 신뢰구간 : 1.23-3.13) 높았으며, 커피 등의 차를 2-3일에 한잔 마시는 경우에 비해 하루에 2-3잔 마시는 경우는 1.57배(95% 신뢰구간 : 1.01-2.43), 4잔 이상 마시는 경우는 2.86배(95% 신뢰구간 : 1.19-6.87) 높았다. 이외에도 정상혈압자에 비해 고도 정상인 경우 2.37배(95% 신뢰구간 : 1.35-4.15), 제 3기 고혈압인 경우는 4.87배(2.26-10.49) 높았고, 총콜레스테롤이 250mg/dL 이상인 경우는 200mg/dL 미만인 군에 비해 2.31배(95% 신뢰구간 : 1.48-3.60) 높았다. 체질량지수, 혈당 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위험도를 보이지 않았다.

4. 고찰

한국인의 관상동맥성 심질환 발생에는 흡연, 과량의 커피 등 차의 음용, 고혈압, 고콜레스테롤혈증이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으며, 이들 요인은 질병 예방을 위해 충분히 조절 가능하기 때문에 이 연구의 결과는 적극적인 질병 발생 예방을 위한 보건사업을 시행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.